

목포 남항 국내 첫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속도

해수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친환경 연료기술 상용화 실증 KRISO 연구센터·UST 캠퍼스 개설 등 생태계 조성 박차

목포시가 남항에 추진 중인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 대응과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총사업비 415억원 규모의 친환경선박 혼연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450억원)' 공모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선박의 친환경 연료인 LNG와 암모니아 혼연 연료를 실증하는 한편 연료전지·배터리 등 다양한 친환경선박 추진기술 실증을 위한 해상 테스트베드(시험선박 등)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를 확보해 친환경 연료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함께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선박온실가스 규제 대응과 친환경선박 개발·보급과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친환경선박 혁신기술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RISO 친환경연구센터 유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캠퍼스 개설 등 남항을 세계적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전남도, KRISO, UST 등과 함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친환경선박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남항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감도.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 미래 3대전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에서 핵심인 친환경선박산업이 앞으로 든든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

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제주 가는 코로나백신 완도해경이 '에스코트'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항에서 제주항까지 코로나19 백신 해상 운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선을 이용한 백신 해상 운송 업무와 관련해 완도해경과 제주해경은 합동 경호·호송 작전을 펼쳤다.

안전하고 신속한 호송 작전을 위해 백신을 실은 여객선에는 제주해경정 특공대원과 육군이 탑승했으며, 완도·제주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했다.

완도해경은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만 2952명 분의 백신을 제주로 운송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섬 백지 주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읍압 들 것을 이용한 긴급 환자 이송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운송의 전 과정에 경비함정을 배치, 만에 하나의 우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백신 집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영암군-행안부 코로나 방역 합동점검 실시

영암군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점검차 영평을 찾은 행정안전부 지역책임관과 함께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책임관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에 따라 올해 1월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1회씩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 지역별 대응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영암군을 찾은 지역책임관(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재과장)은 박종필 부군수로부터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상황과 백신 예방접종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업무 추진과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중대본 정례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불국

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선제적 전수검사 사례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민간 자율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역전도 지자체로 각광받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영암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 절차, 방역 및 백신보관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와 유관기관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박종필 부군수는 "이번 지역책임관 합동점검을 통해 우리군의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전 국민 예방접종을 조속히 실시코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코로나19 대응 점검차 영암군을 찾은 행정안전부 지역책임관 일행이 군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영암군 제공>

'2021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영광군 대상

영광군이 최근 전남도의 '2021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영광군은 매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올려 왔지만, 대상 수상은 세정종합평가 실시 이후 최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각 시군의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납세자 편의시책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군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와 탈루 세원발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징수로 인한 세외수입 징수를 증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와 지방세 이등민원실 지속 운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도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하고 납세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으면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희중 영광군 재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 모두가 이뤄낸 합작품"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 납세 편의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 쌀, 전남 10대 브랜드 기대"

군, 선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준공...연간 9000t 처리

진도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RPC는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이다.

진도 선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1만7960㎡ 부지에 6297㎡의 규모로 건축됐다.

이 곳에는 벼 수확 후 건조와 도정 검사 등이 가

능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 현대화된 자동제량포장, 수송관리시스템 등으로 연간 9000t의 쌀 가공 처리가 가능해 진도 쌀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도정과정, 저장창고가 좋지 않으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없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진도군 쌀 산업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해 진도 쌀이 전남 10대 브랜드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경 기자 hypark@kwangju.co.kr



LX, 국민생활의 플랫폼이 되다

스마트 지적축량, 안전정보 제공, 스마트시티 구축에 이르기까지 LX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광주전남지역본부

www.lx.or.kr